

정부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 어떤 방안 제시될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우선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세종,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조기 지정하고 공공개발과 공공분양을 확대해 중장기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도 주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합과 시공사의 사업 추진 의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며 주택 공급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조환 완화와 함께 이러한 규제 완화가 병행될 경우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주도 공급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간 건설

공공택지 공급 확대·정비사업 활성화·규제 완화·민간 참여 유도 등 ‘큰 틀’ “공급확대와 함께 수요 관리·시장 심리 안정 등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시장의 수요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 정책이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사업 발표와 기대감만으로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는 정책 집행 속도와 지역별 개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관리, 시장 심리 안정 등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구체적인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범위가 주택시장 안정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뉴스시

전라남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에서 현지 기업·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LA 한인상공회의소 임원단을 비롯해 주요 기업 대표와 투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남도, LA 투자설명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현지 기업·경제단체와 교류 강화·투자 협력 확대 모색

전남도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전남도 투자환경 ▲전략산업 육성계획 ▲기업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캘리포니아한국기업협회(KITA·

회장 김한수)와 투자 간담회를 열고, AI기반 스타트업·로펌·인문 관계자들과 함께 전남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기회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로 전남도의 투자 방향에 대해 조언했으며, 향후 협력 기업과 함께 전남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또 미국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LA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LA·회장 정병모)를 방문해 전남의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전남에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과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신영길 기자

지급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로또복권(2024년 12월 14일 추첨) 1150회차 1등 당첨금 15억여 원의 주인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0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24일 밝혔다.

1150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건, 2등 3건으로, 총 4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

“로또 1등 15억 주인 찾습니다”... 1150회차 당첨금 50일 뒤 소멸

지난해 12월 추첨된 1150회차 1등·2등 총 4건 미수령

금은 15억7062만309원이며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이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969만668원으로,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와 보너스 번호 ‘25’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강원 원주

시,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

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주거안정사업, 서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끼고자 복권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고 복권의 소유 여부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보관 중인 로또복권 가운데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당첨금 지급 기간인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시

전남대, 30일 ‘취업박람회’... ‘대기업-공공기관’ 80곳 참여 전남대 출신 직장인 ‘취업 노하우’ 공유

전남대학교는 30일 교내 5·18광장 일대에서 국내 80여개 유명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주요 기업과 KIA, 삼성, SK, KT, OCI 등 대기업이 참가한다. 스미토모 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한국알프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지역 우수 기업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직무컨설팅존, 전남대 히어로존, 유관기관 홍보존 등 총 80개 부스가 운영된다. 각 기업은 현장에서 채용정보 제공, 직무상담, 현장면접이 진행된다.

도서관별 취업강의실에서는 올해 하반기 채용 예정 기업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전남대 히어로존에는 GS리테일, 현대자동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근무 중인 전남대 출신 12명의 선배 현직자가 참여해 대학 시절 취업준비 경험과 생생한 도전 스토리를 후배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등 청년고용정책 홍보 부스와 함께 인생네트, 퍼스널컬러 진단, 톨렛 이벤트, 타로 상담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한다.

박람회 참여 기업 리스트와 세부 정보는 전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채일 기자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통한 불법 외환거래 226억

휴대반출입 18건, 환치기 2건... 최근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캄보디아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2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현금 밀반출을 넘어 보이 스피싱·로맨스스캠 등 범죄 자금이 캄보디아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1~8월)까지 10년간 적발된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규모만 22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건(1억원)에서 2021년 1건(4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건씩 다시 발생하며 최근 들어 재증가 추세를 보였다. 거래 방식별로는 휴대반출입이 18건, 환치기가 2건으로 나타났다.

휴대반출입은 미화물 기탁 수화물 등에 숨겨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는 방식이었으며, 환치기는 국내 송금 회망자의 자금을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으로 송금·정산하는 형태였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불법 자금이 범죄 수익 은닉과 결합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2016년 이후 감소세

였던 불법 외환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보이 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과 연루된 외환 불법 반출이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캄보디아 보이 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가장자산을 매개로 은닉, 국외 불법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외 보이 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TF’에 참여해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한 보이 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 자금의 국외 불법이전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과정에서 범죄자금 연루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근원 범죄까지 단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시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